

사단법인 일일시호일

2021년 이사회 회의록

1. 회의 일시 : 2021년 8월 23일 오후 6시 30분
2. 회의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3. 참석자 : 이사장 포함 이사 5명
4. 의 제
 - 1) 대표이사 사임에 따른 임시총회 개최의 건
 - 2) 기타 안건
5. 회의 내용

발언자	회의 진행 사항
심정섭(이사장)	<p>이사님들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8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정관개정은 이사님들과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무관청 허가와 등기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일일시호일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이주민들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 고충을 해결하고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계획했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법인사무국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보다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 본인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새로운 역량을 펼칠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p>
남배현	<p>대표이사 말씀대로 그동안 법인의 초석을 다지는데 주력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현 대표이사께서 계속해서 법인을 이끄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사임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p>

심정섭	지금은 새로운 틀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일단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외부 활동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조력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재형	대표이사께서 결심이 확고하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법인 설립부터 지금까지 사무국 관련 일까지 도맡아 해 왔으니, 향후에도 법인 사무국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정섭	신임 대표이사와 이사님들께서 제게 사무국 일을 맡긴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향후 새로운 대표이사와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권오영	현 대표이사 말씀대로 일정부분 역할 조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조계종복지재단과 업무협약에 따라서 영등포구건강가정다문화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직접 위탁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외부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대표이사께서 건강상 외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아쉽지만 대표이사 말씀대로 역할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정섭	이사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사들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만큼, 저의 대표이사 사임에 따른 신임 대표이사 선출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정된 정관에 의해서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사 전원	동의합니다.
심정섭	그럼 현 대표이사 사임과 신임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일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재형	다문화센터 위탁운영에 참여하기 위한 대표이사의 활동이 필요한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의원들에게 공지하는 시간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오영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수가 모이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만큼, 화상회의를 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주일 정도면 사무국에서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무국에서 곧바로 총회 일정을 공지하면 9월 7일 정도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형규	네 저도 그 정도 시간이면 총회를 개최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봅니다.
심정섭	이사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9월 7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사 전원	동의합니다.
심정섭	이사님들 전원 동의하에 9월 7일 신임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사무국에서 공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에서 기타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법인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발급 요청사항입니다. 사무국장을 통해 잠시 관련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사무국장)	현재 사무국에서는 지원금 및 각종 대부분의 운영경비를 통장 자동이체를 통해 증빙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의비 및 소모품 등의 경우 사무국 직원이 경비를 처리하고 추후 지출결의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외 활동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투명성 제고와 업무편의 및 자료증빙 등을 위해 법인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발급을 제안합니다.
심정섭	이상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법인에서 사용할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발급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사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향후 법인의 대외 활동이 많아지게 되면, 법인 업무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배현	네 이 부분은 사무국에서 요청한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정섭	이사님들 의견에 따라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개설은 사무국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사 전원	동의합니다.
심정섭	이상으로 오늘 이사회에 상정한 안건을 모두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하나마 법인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심정섭



이사 김형규



이사 남배현



이사 이재형



이사 권오영

